

전북, 미세먼지 개선폭 가장 커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적으로 평균농도 개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4 $\mu\text{g}/\text{m}^3$ 로 전년보다 27% 감소 도내에서는 39→26 $\mu\text{g}/\text{m}^3$ 로 광주와 함께 33% 줄어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광주의 개선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향은 전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 $\mu\text{g}/\text{m}^3$ 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mu\text{g}/\text{m}^3$ 에서 약 27%($\Delta 9\mu\text{g}/\text{m}^3$) 감소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아울러,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전년 대비 약 28%($\Delta 79\mu\text{g}/\text{m}^3$) 감소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mu\text{g}/\text{m}^3$, 전북 39→26 $\mu\text{g}/\text{m}^3$), 서울은 약 20%(35→28 $\mu\text{g}/\text{m}^3$) 개선됐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하는 등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상 기자

다가오는 총선 대비

전기안전공사, 투·개표장 전기설비 전수 점검 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삽안전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부터 선거 대비 전기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투표소 3,500여 곳을 포함, 전국 1만 8천여 개 투표소와 개표소 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3일부터는, 전수 점검과 병행해 1차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합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차 개수(改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를 이를 위해 본사에 전기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투·개표 종료 시점까지 전국 60개 사업소 별로 긴급출동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인 15일 오후에는 개표 진행 중 있을지 모를 정전 상황에 대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는 개표소를 대상으로 현장대기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조성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국민의 불안감이 없도록 투·개표장 시설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LX 공간정보연구원

교통대와 자율주행 분야 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원장 김현균)이 자율주행 분야의 혁신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한국교통대학교 협력자율주행 인프라 ICT 연구센터와 '정보통신방송 자율주행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와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 LX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통대와의 연합체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활용을 위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 구축 등 향후 ICT 융합기술인 자율주행 분야의 우수전문인력 양성과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에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LX는 관공제도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합 고정밀디지털지도를 구축한 바 있다.

김현균 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산업과 생활을 바꿀 핵심 분야"라며 "LX가 가진 역량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자율주행 혁신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아T, 사장 이병호)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총 60건의 긴급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인삼·유제품 중화권 수출 대폭 증가

aT, 중국 등 대상 60건 판촉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총 60건의 긴급판촉행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인삼과 유제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전 세계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권역별 온·오프라인 긴급판촉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화권 수출효과제품인 김치와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은 대

형유통매장과 연계해 긴급판촉을 실시하는 한편, 인삼제품과 유아용식품은 건강전문백화점과 영유아전문점을 대상으로 특별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대치가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4주차 당시만 해도 중화권 인삼 및 유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27.3%, 7.7%씩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으나, 한 달 만인 3월 4주차에는 전년 대비 각각 20.8%, 16%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이번 긴급판촉 행사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중국 전자상거래 점유율 2위인 징둥 산하 O2O 신선식품마트인 7-fresh 상하이 매장에 한국산 유제품인 신선우유가 신규 입점돼 한 달 만에 28만 달러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이에 힘입어 농식품부와 aT는 4월부터 중국 내 1, 2위 온라인 채널인 허마센싱과 징둥에서 한국농식품 판촉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춰 김치, 인삼 등 면역력 강화에 좋은 한국식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중국 내 온라인 생방송과 SNS 등을 통한 온라인마케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신원근 aT 식품수출부장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 세계 소비시장 판도를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유력 온라인 채널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상 기자

춘곤증을 이겨내는 제철 약초

더덕·쑥·갯기름나물

농진청, 비타민 B1·C 등 함유돼 있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월 나른한 봄, 춘곤증을 이기고 봄에 활력을 채워주는 제철 약초로 더덕, 쑥, 갯기름나물을 추천했다.

춘곤증은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일시적인 환경부적응증이다. 비타민 B와 C, 무기질이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섭취하면 춘곤증을 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덕은 폐와 기관지를 축축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기침, 가래, 발열 등을 동반한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B1, B2, B6, C, 칼슘, 섬유질 등이 함유돼 있어 춘곤증을 쫓는데 제격이다. 고추장을 넣어 무침이나 구이로 요리한다.

쑥은 성질이 따뜻해 봄 안에 들어온 한기를 없애고 통증을 줄여준다. 환절기 차가운 기운이 몸속에 들어와 생기는 감기,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 B, C, 칼슘 등 영양소가 두루 들어있어 신선대사를 촉진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김문상 기자

쑥의 정유(기름) 성분인 시네올(cineol)은 특유의 향긋한 향과 시원한 맛을 내는데, 항균과 해독 작용이 있고 소화액 분비를 늘려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어린순은 쑥떡, 쑥부리, 쑥전, 쑥국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고 성숙한 쑥은 약으로 쓴다.

식방풍, 방풍나물로도 알려진 갯기름나물은 한약재로 쓰이는 방풍과 달리 식재료로 이용되며 청열(열 제거), 해독, 진통 효능이 있다.

비타민 B1, B2, C, 칼륨,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춘곤증을 이기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염증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케양성 대장염 등 염증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쌀, 무침, 장아찌, 전 등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도 풍미가 좋지만 흔히 살짝 데쳐서 갖은 양념에 무쳐 먹는다.

김동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춘곤증을 겪는 봄철에 더덕, 쑥, 갯기름나물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고 활력을 채워줄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상 기자

경쟁적 대화 의한 계약방식 도입

조달청, 이달부터 본격 시행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적 조달제도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품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었던 반면,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김문상 기자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 공고서를 마련했다. 또한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 (<http://ppg2b.go.kr>)에 구축해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계약 절차와 제도도 '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조달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신면 구매사업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김문상 기자

전북농협, 코로나19 극복 '앞장'

기부금·방역용품·농산물 등 기부... 꽃 소비촉진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 등 범농협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부금, 방역용품, 우리 농산물 등을 기부해 사태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지난달 31일 현재 농협중앙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1,000만 원 상당의 반찬 1,206개를 전달했으며, 농협은행은 전북도에 1천만원 기부, 전북 관내 시군지부는 농·축협과 협력해 지자체에 1억6,93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등 총 1억 8,930만원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농협은 범농협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졸업식이나 행사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6,500만원 상당의 꽃을 구매하는 등 꽃 소비촉진 운동을 주도했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 친환경농산물 소비, 현열행사 개최, 구

호급식차량 전달, 착한 임대료 동참, 각종 금융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임직원 성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농·축협도 자체적으로 활발히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원협이 대구에 1,700만원 상당의 라면류 500박스, 고창농협이 각 영농회에 3,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12,400장과 손소독제, 전주농협이 전주시에 쌀 100포, 남원축협이 소방서에 방역복 852벌, 남원농협이 원에 농가를 돕기 위해 포장자재 5,000상자 등을 기부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축협·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축협 영농기회 지원, 가족질병 방역활동, 농촌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인양, 기부금 전달 등 사재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문상 기자

'위 아 커넥티드, 함께 따뜻해요' ... 전북은행, JB카드 이벤트 시행

생활요금 패키지 자동이체

항목에 따라 최대 ~4만원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일부터 JB카드 자동이체 이벤트를 'We are Connected, 함께 따뜻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생활요금 패키지(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이동통신비, 렌탈료, 한국아쿠르트)와 여가요금 패키지(넷플릭스, 웨이브, 밀리의 서재, 유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항목 신청 시 최대 5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및 친구 결합 납부 혜택과 당행 카드 결제와 변경 혜택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이후에 항목별로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내역이 없으면 이벤트 대상이 된다.

EVENT 01 생활요금 자동이체 대상카드: JB캐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항목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비	렌탈료 CUCRDO	한국아쿠르트	도시가스비
자동이체 신청 항목별 캐시백 금액				
1개 항목 신청 시 4천원	2개 항목 신청 시 1만원	3개 항목 신청 시 2만원	4개 항목 신청 시 3만원	5개 항목 신청 시 4만원

EVENT 02 여가요금 자동이체 대상카드: JB캐인 체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항목			
YouTube Premium 유튜브 프리미엄	NETFLIX 넷플릭스	wavve 웨이브	Millie 밀리의 서재
자동이체 신청 항목별 캐시백 금액			
1개 항목 신청 시 2천원	2개 항목 신청 시 5천원	3개 항목 신청 시 8천원	4개 항목 신청 시 1만원

전북은행 카드사업무 관계자는 "젊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JB와 함께 하는 고객님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 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벤트로 감사의 마

음을 전달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 뉴 스마트뱅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상 기자